

## 기독교대학생과 비기독교대학생의 강박관념 분석

전요섭\*, 류현미\*\*

### I. 서 론

청년기는 극심한 압력이 외적으로 부모, 동료, 그 외의 타인들로부터 내적으로는 개인적인 목표들, 종종 이상적인 것으로부터 옹고 중요한 삶의 선택들인 대학에 진학하기, 직업 선택, 결혼 문제, 미루어진 계획들 등등 성인기를 준비하는 시기이다.<sup>1)</sup> 그리고 청소년기 때보다 훨씬 개인주의적이고, 사회에 관한 폭넓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명확한 목적을 가진 특별한 집단에 소속되어 지도자적인 입장으로 활동하기도 한다.<sup>2)</sup> 또한 대학에서 지적인 방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전문적인 연구에 전념하는 것도 바로 청년기인데, 사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사회의 각 방면과 접촉하는 중에 부딪치는 모든 문제를 모두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청년기에 도달해야 할 발달과업을 자신의 생활에 필요적절하게 적응을 해야 한다. 즉 교육을 받고, 직업을 선택하며, 일자리를 구하고, 배우자를 찾는 등

\* 전요섭: 성결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장

\*\* 류현미: 성결대학교 심리상담연구소 연구원

1) Paul D. Meier, Frank B. Minirth, Frank B. Wichern, *Introduction to Psychology and Counseling* (Grand Rapids: Baker, 1989), 125.

2) 이승재, 「기독교 청소년 상담 지도서」 (서울: 은혜출판사, 1995), 108-112.

여러 가지 복잡한 개인 문제와 사회 문제에 당면하고 있으며 자기의 일생을 사회의 어느 방면에 바쳐야 할까를 결정한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청년들은 스트레스나 불안에 만연된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나 불안을 불합리한 생각과 그에 맞는 행동양식, 즉 징크스(jinx)라고 취급하면서 해결하려는 방식은 개인의 삶 속에서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본 연구의 대상자이자, 청년기에 속한 대학생들도 그들의 삶 속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근래에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취업난이기에, 그래서 대학가에는 일명 ‘학점 올리기 강박증’이라는 것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경기침체로 취업난이 장기화되고 학부제와 광역화 모집 등으로 학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같은 과목을 재수강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것으로, 어떤 학생들은 좋은 점수를 받고서도 계속적으로 수강신청, 학점 콤플렉스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런 모습은 현대사회에서 바늘구멍과 같은 취업난 속에 자신과 타인과의 경쟁하는 분위기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드물었고 한국에서는 평생 유병률이 일반연구에서 약 2.14%-3%에 달하면서 남자에게 그리고 미혼자에게 더 발병하기 쉬운 강박관념과 강박행동에 대해서 다루어볼 것이다.<sup>3)</sup> 본 연구의 대상자는 기독교대학생들과 비기독교대학생들로 그들 각자가 지니고 있는 불합리한 생각과 행동양식, 즉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사건과 직결된 불안감 때문에 이러한 것을 떨쳐버리려고 어떤 생각이나 행위를 계속 되풀이하는 강박성향을 대처하는데 있어서 종교나 기독교 신앙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3)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편, 「신경정신과학」 (서울: 하나의학사, 1998), 423.

## A. 기독교 신앙과 청년기

청년을 의미하는 ‘youth’ 혹은 ‘adolescence’인데, 이 중에 ‘adolescence’의 원래 의미는 ‘성장한다’로 청년기가 신체적, 심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커다란 발달이 이루어지는 전환의 시기로서 인생의 독특한 시기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청년기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기란 쉽지 않다. 청소년 기본법에 정의된 바에 의하면 청소년 혹은 청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sup>4)</sup>

또 다른 견해로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아동이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정서적 불안, 부적응, 고민, 성인 의식, 이성에 대한 관심, 직업선정과 그 준비, 인생과 모색 등의 단계로 12-13세에서 21-22세까지 보고 있다. 이는 청소년기란 사춘기와 청년기를 총칭하여 12-14세에서부터 연령과 관계없이 결혼과 직업과 책임을 성취할 때까지를 보며, 이 중 하나가 내달(來達)되어도 청년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는 견해이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성인의 행동을 하기에는 이른 단계에 있는 자라 하여 그 연령을 14세에서 25까지 보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연령 범위는 학자에 따라 발달적인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비행과 관련 있는 법률 조항에서는 19세 미만을 청소년이라고 한다.<sup>5)</sup>

G. Stanley Hall은 청년기가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 신체·생리적으로는 생동감이 넘쳐흐르며, 꿈을 추구하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소유하고 있는 시기라고 하였다.<sup>6)</sup> 그리고 Hall의 청년기 연구와 Anna Freud의 심리분석적 견해에서는 청년기를 폭풍과 긴장의 시기로 본다. 한편, 초기의 Margaret Mead와 Ruth Benedict와 같은

4) 최윤미 외 11인 공저, 「현대 청년 심리학」 (서울: 학문사, 1998), 13-15.

5) 이성구, 「비행 청소년의 이해」 (서울: 제3공간, 2000), 13-15, 237.

6) 김애순, 윤진 공저, 「청년기 갈등과 자기 이해」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7), 10.

사람은 청년기를 문화적으로 조절되는 기간으로 봄으로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문화 인류학자들은 문화에 있어서 지속적인 성장의 가능성을 강조하여 왔다. 이 가능성은 유년기와 장년기에 있어서 그 가치가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7)</sup>

Erik H. Erikson은 그의 책 *Childhood and Society*에서 생애주기이론(life cycle theory)을 처음으로 발표했고, 심리·사회적인 관점에서 8단계로 나누었는데, 당시 Erikson은 Luther의 청년 시기에 대한 연구에서 이 이론을 적용하게 되었다. 그는 8단계의 발달기적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시기를 6단계인 ‘친밀감’으로 보았으며, 청년기가 여기에 속한다.<sup>8)</sup> 6단계인 친밀감 대 고립감에서 진정한 친밀감은 전단계인 청소년기에서 합리적인 정체감이 형성되었을 때 가능하지만, 만약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친밀감을 획득하기보다는 반대쪽인 고립감과 자기 몰두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

Edgar Friedenberg는 “청년기는 오래 끄는 -개인과 사회간의- 갈등의 시기”라고 주장한다.<sup>9)</sup> 이것은 청년이 성인의 세계에서 가치관과 요구를 깨달아야 하며, 이 세계에 대해 반항할 수도 있고 또는 동일시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청년기에 대한 견해들이 다양한데, 20대 초반부터 시작되는 청년기는 흔히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 최고의 상태에 도달

7) Marvin J. Taylor (ed.),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Education*, 송광택 역, 「기독교 교육학」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1), 311-312.

8) Erikson은 8가지 단계에서 1단계는 기본적 신뢰감 대 불신감(basic trust vs. mistrust), 2단계는 자율성 대 수치심과 회의감 (autonomy vs. shame and doubt), 3단계는 주도성 대 죄책감 (initiative vs. guilt), 4단계는 근면성 대 열등감 (industry vs. inferiority), 5단계는 정체감 대 역할혼란 (identity vs. confusion), 6단계는 친밀감 대 고립감 (intimacy vs. isolation), 7단계는 생산성 대 자기침체 (generativity vs. self-absorption), 8단계는 통전성 대 절망감 (ego integrity vs. despair)이다. Donald E. Capps, *Life Cycle Theory and Pastoral Care*, 문희경 역, 「인간 발달과 목회적 돌봄」 (서울: 이레서원, 2001), 11-13.

9) Taylor (ed.), 311.

하는 시기이며, 청소년기에 비해 인지 및 신체 발달에서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많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함께 다양한 역할을 통해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기라 할 수 있겠다.<sup>10)</sup> 또한 청년기는 자신 스스로가 들어가서 일하고 싶어하는 직업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그들만의 희망사항, 그리고 그들의 남은 삶을 함께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타입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기이기도 하다.<sup>11)</sup>

신앙에 있어서 청년기에 나타나는 특징은 이미 정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의미 있는 위탁을 하며, 이들은 스스로가 한계점에 머물도록 하게 하는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다.<sup>12)</sup>

이러한 청년기의 신앙적인 특징도 심리학적인 발달단계처럼 각각의 단계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먼저 John H. Westerhoff III는 신앙을 인격의 총체적 행위(a total act)라고 하면서, 전인적인 참여 속에 전 생애에 걸쳐 성숙성의 연계적 단계를 통해 발달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Westerhoff III는 신앙의 발달을 신앙의 유형으로 4가지 형태로 나누었는데, 제1형태를 경험적 신앙(experienced faith), 제2형태를 귀속적 신앙(affinitive faith), 제3형태를 탐구적 신앙(searching faith), 그리고 제4형태를 고백적 신앙(owned faith)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형태 사이의 관계를 표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무의 성장 비교, 유추하여 설명하였는데, 이 중에서 제 3형태 탐구적 신앙이 바로 청년기에 속한다고 하였다.<sup>13)</sup> 이 형태의 신앙적인 특징은 우선, 회의(doubt)와 비판적 사고나 판단행위가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때때로 고민하고, 또 어떤 때는 기쁨을 가지고 이전에 지니고 있던 신앙의 이해에다 정면으로 진지하게 맞서기도 한다. 또한 자신의 생활을 어떤 인격체나 그 주장

10) 오세진 외 11인 공저, 「인간 행동과 심리학」 (서울: 학지사, 1999), 237.

11) Meier, Minirth, Wichern, 130.

12) Meier, Minirth, Wichern, 130.

13) 박홍식, 276-279.

에 구체적으로 위임(commit)하는 일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이 시기에는 다른 사람의 신앙의 영향력에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스스로 무엇인가에 자신을 위탁하려는 모습이 뚜렷하기 때문에, 제 3형태인 탐구적 신앙의 모습을 지닌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James Fowler는 신앙 발달 단계에 대해 0단계에서 6단계까지 나누었다.<sup>14)</sup> 0단계는 태어날 때부터 4세까지로 미분화된 신앙(undifferentiated faith) 또는 단계 이전의 신앙(pre-stage)이고, 1단계는 4세부터 7세까지로 직관적·투사적인 신앙(intuitive·projective faith)이 나타나고, 2단계는 학령기 아동기로 신화적·문자적인 신앙(mythic·literal faith) 나타나며, 3단계는 청소년기로 종합적·인습적인 신앙(synthetic·conventional faith)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4단계는 청년기로 개별적·반성적인 신앙(individualistic·reflective faith)이 나타나고, 5단계는 30대 중반 내지는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며 결합적 신앙(conjunctive faith)이 나타나며, 마지막 6단계는 중년과 노년기가 해당되며 보편적 신앙(universalizing faith)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여기서 특별히 개별적·반성적인 신앙에 속하는 청년기는 청소년기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띠게 되는데, 신앙의 성장에 관한 한 신앙의 거듭남이라 할 수 있다. 이전 단계까지의 신앙이 주위에 의지한 신앙이라면 청년기의 신앙은 자신의 신앙 또는 자주적인 신앙이라 할 수 있다. 3단계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성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신앙에도 나타나 청년기에 들어서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 깊은 반성이 일어나며 자주적인 신앙을 가지려는 노력을 한다. 남의 관점에서 벗어나 자신의 관점을 가지려고 한다. 청소년기까지는 부모의 신앙이요, 주변 사람의 신앙이요, 교회의 신앙이다. 그러나 이 청년기에 들어서면 스스로의 신앙을 가지려고 애쓰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 반성하며 자주적인 결단에 의해 실존적인 신앙을 가지려고 한다. 자신의 헌신, 삶의 스타일, 신념, 태도에 대한 책임을 심각히 결정하고 감당해야

14) 박원호, 「신앙의 발달과 기독교 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6), 66-75, 131-132.

하기에 대부분의 경우 깊은 갈등과 고통을 겪게 된다. 예전의 자신의 신앙이 남에게 의존되어 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자기 신앙의 공백 현상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의 발달 단계에 있어서는 3단계인 청소년기의 신앙에서 4단계인 청년기의 신앙으로의 전이가 가장 힘이 든다. 또한 이 시기에는 사고(思考)가 이분법적(dichotomizing)인 사고가 주류를 이루며 삶에서의 여러 역설과 극단적인 대립을 경험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개인과 공동체, 특별과 보편, 상대와 절대, 자아 성취와 타인에 대한 봉사, 감정과 생각, 주관과 객관 등이 있다. 특별히 Fowler는 청년기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이전 단계인 종합적·인습적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변 사람에 의존하는 신앙으로 평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성공적으로 다음 단계인 개별적·반성적인 신앙으로 옮겨져서 자주적이고 실존적인 신앙을 갖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이에 관한 Fowler의 연구에 의하면, 성공적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경우가 결코 흔하지 않다고 한다. 성공적인 전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정체에 대한 건강한 의식과 함께 친근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신의 정체에 대해 건강한 의식이 있을 경우 다양한 대립적 신앙들을 다루거나 자신이 지금껏 가졌던 신념들을 반성적으로, 비평적으로 다룰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자신을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이를 허용치 않는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들이 흔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 B. 강박성향

### 1. 강박성향의 개념

강박성향에서 강박관념(obsession)은 지속적인 관념, 사고, 충동 또는 심상으로서, 침입적이고 또는 강요적이고 부적절한 것으로 경험되며 심한 불안과 고통을 일으킨다.<sup>15)</sup> 강박관념의 침입적이고 부

15) Robert L. Spitzer, Miriam Gibbon, Andrew E. Skodol, Janet B. W.

적절한 성질은 ‘자아 비동조적’이라고 지칭되어 왔다. 이는 강박관념의 내용이 이질적이고, 개인의 통제권 밖에 있으며, 개인이 기대하는 종류의 사고가 아니라는 개인의 느낌을 말한다. 그러나 개인들은 강박관념이 그들이나 그들 자신의 정신의 산물이며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가장 흔한 강박관념들은 오염(예: 악수할 때의 오염)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반복적인 의심(예: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그냥 나오지 않았는지에 대한 궁극함), 특별한 순서로 물건을 정리하고 싶은 욕구(예: 물건이 무질서하거나 정돈되어 있지 않을 때 받는 강한 고통), 공격적이거나 두려운 충동(예: 아이를 해치거나 교회에서 음담패설을 늘어놓음), 그리고 성적인 심상(예: 반복되는 호색적인 상상) 등이다. 사고, 충동 또는 심상은 실생활의 문제와 관련되는 단순히 지나친 걱정(예: 재정, 일 또는 학교 문제 처럼 현재의 생활에 대한 염려)이 아니다. 이 강박관념들을 제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으로 중화시키려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행동을 강박행동이라고 한다.

강박행동(compulsion)은 반복적인 행동(예: 손 씻기나 정돈하기 그리고 확인하기)이나 정신적 활동(예: 기도나 숫자세기 혹은 마음속으로 단어 반복하기)으로, 그 목적은 불안이나 고통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이지 기쁨이나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sup>16)</sup> 대부분의 경우 개인들은 강박관념에 동반되는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또는 어떤 두려운 사건이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강박행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그래서 정의에 의하면, 강박행동은 명백하게 지나친 행동이며, 중화하거나 방지하고자 하는 것과 현실적인 방식으로 연결되지 않는 행동이다. 그러나 강박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다면 오히려 유용하지만, 지나치게 심각할 경우에는 개인적인 역할에 있어 방해가 되는 원인을 일으키게 된다.<sup>17)</sup> 이러한 강박행동의 가장 흔한 행동

Williams, Michael B. First,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IV*, 이근후 외 14명 공역,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제4 판」 (서울: 하나의학사, 1995), 546.

16) Spitzer, Gibbon, Skodol, Williams, First, 546-547.

은 씻기와 청결하기, 숫자세기, 점검하기, 반복적으로 행동하기, 그리고 정돈하기 등이다. 따라서 강박행동은 미신적인 행위와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 2. 강박성향의 임상적인 특징

강박성향이 심각할 경우 심한 고통을 초래하고 시간을 소모시키며(하루에 1시간 이상) 정상적인 일과, 직업적 활동 또는 일반적 사회 활동이나 대인 관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 또한 강박성향을 유발할 수 있는 대상이나 상황을 회피하기도 하고, 이러한 회피가 확장되면 전반적 기능에 있어서 심한 제한이 초래된다. 이것이 장애가 될 경우에는 불안장애의 하위영역에 속하는 강박장애(Obsessive-Compulsive Disorder)로, 이 강박장애는 과거에는 비교적 드문 것으로만 생각되었지만, 근래의 지역 사회 연구에는 2.5%의 평생 유병률과 1.5-2.1%의 1년 유병률을 보고하고 있다.<sup>18)</sup>

강박장애는 주요 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 기타 불안장애(특정 공포증: specific phobia, 사회공포증: social disorder, 공황장애: panic disorder), 그리고 섭식장애(eating disorder)와 강박성 인격장애(obsessive-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를 동반할 수도 있다. 뚜렛장애(tourette disorder)<sup>19)</sup>가 있는 경우에는 강박장애가 대략 35-50%로 높은 유병률을 나타내며, 반대로 강박장애에서 뚜렛장애의 유병률은 5-7% 정도로 낮고, 강박장애의 20-30%에서 현재 혹은 과거의 틱(tic)<sup>20)</sup>이 보고되고 있다.

17) Gerald G. May, *Care of Spirit: A Psychiatrist Explores Spiritual Direction* (San Francisco: HaperSanFrancisco, 1992), 169.

18) Spitzer, Gibbon, Skodol, Williams, First, 548-551.

19) 뚜렛장애란 여러 가지 틱이 혼합된 장애로, 다발 운동성 틱과 하나 이상의 음성 틱이 현재 있거나 과거로부터 있어온 장애를 말한다. 그렇다고 운동성 틱과 음성 틱이 동시에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장애의 발병 시기는 거의 언제나 아동기나 청소년기이다. 박경, 서혜희, 최정운 공저, 「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0), 283.

이 강박장애는 보통 청소년기나 초기 성인기인 청년기에 시작되지만, 소아기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 강박장애의 빈도는 남녀에게 있어서 비슷하지만, 발병 연령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빠르다. 남성은 6세에서 15세 사이이고, 여성은 20세에서 29세 사이다. 대부분의 경우 발병은 점진적이지만 급성적인 발병도 간혹 보고된다. 대부분의 개인들은 만성적으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과정을 밟으며, 증상의 악화는 스트레스와 연관되기도 한다. 약 15%는 직업적,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 점진적인 황폐화를 보인다. 약 5%는 진단기준에 있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을 수도 있다.

강박장애의 일치율은 이란성 쌍생아보다 일란성 쌍생아에서 더 높다. 강박장애가 있는 개인의 직계가족과 뚜렛장애가 있는 개인의 직계가족의 강박장애의 비율이 일반 인구보다 더 높다.

강박장애는 강박성 인격장애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이 두 장애들의 임상적 양상은 상당히 다르다. 강박성 인격장애는 강박관념과 강박적인 행동이 특징적이지 않다.<sup>21)</sup> 이 인격장애는 정리정돈, 완벽주의, 통제와 같은 광범위한 양상을 포함하고,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며 대개 남성이 발병할 확률이 여성에 비해 2배나 높다. 또한 강박성 인격장애는 보통 'A타입 인격' 특징과 중첩된다.<sup>22)</sup> 만약 강

20) 틱은 갑작스럽고 빠르며 반복적이고 리듬이 없는 상동증적인 운동 동작 또는 발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눈을 깜박거리거나 혀를 내밀거나 침을 삼키는 행동이 있다. Spitzer, Gibbon, Skodol, Williams, First, 551.

또한 틱은 음성 틱이 생기기 전에 운동성 틱이 생기는 것이 보통이고, 청소년기에 자주 증상이 악화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지속되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서 음성 틱은 가래 뱉으려는 소리, 쿵쿵거리는 소리 같은 폭발적이고 반복적인 발성을 동반한 다발성이며, 외설스런 단어나 어구를 쓰는 경우가 있다. 때때로 몸짓의 반향행동(echopraxia)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외설적인 성질을 띠기도 한다(corpropraxia). 운동성 틱과 마찬가지로 음성 틱도 잠깐 동안 의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되고, 잠자는 동안 없어지기도 한다. 박경, 서혜희, 최정윤 공저, 283-284.

21) 강박성 인격장애는 몇몇의 연구에서 강박장애와 연관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강박장애를 지니고 있는 개인들은 강박성 인격장애의 진단기준에 맞는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되고 있다. Spitzer, Gibbon, Skodol, Williams, First, 859.

박장애와 강박성 인격장애의 증상을 모두 보인다면 두 진단이 모두 내려질 수 있다.

### 3. 강박성향의 원인 및 치료접근법

#### 1) 기독교 상담학적 관점

강박성향은 불안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 불안에 대해 Gary R. Collins는 “우리 시대의 공식적인 감정”이라고 했고 Frank Minirth와 Paul Meier는 “대부분의 정신의학적인 문제들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원인”이라고 하였다.<sup>23)</sup> 이러한 불안을 성경에서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등으로 기록했다.<sup>24)</sup> 필요에 따라 공급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이 ‘염려’는 불안의 의미로 쓰였고, 바울도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초조와 염려와 같은 불안을 하나님을 배반한 죄 때문에 일어난다

22) A타입 인격은 공격적인 요소나 마음속 깊이 감추어 둔 불안정한 자신에 의해 그 성격이 드러난다. 따라서 A타입의 인격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들이 남성이건, 여성이건 간에 가족의 분열을 일으키거나 정신적 혹은 육체적인 학대, 스트레스, 이혼, 갑작스런 죽음(A타입의 사람은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이 A타입 인격과 반대인 B타입 인격의 사람보다 5배정도 높음)으로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또한 자신에게 감추어진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으며, 자신에 대해 의심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의 성과가 타인의 것에 이르지 못했을 때 이러한 비현실적인 기대에서 비롯된 해결되지 않는 분노 또는 죄책감 등이 상존하게 된다. 그리고 막연한 적대감을 경험하는데, 이것은 지속적이고 내재하는 분노의 표출을 나타내는 것으로 작은 좌절까지 쉽게 생겨난다. 그러나 꿈잘 환경에 당황하고 과도하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멸시하며, 이런 분노 때문에 타인에게 사랑을 주고받고 애정을 받아들이거나 이끄는 것이 매우 어렵다. H. Norman Wright, *Crisis Counseling*, 진요섭, 황동현 공역, 「위기상담학」 (서울: 콤파출판사, 1998), 309-311.

23) Josh McDowell, Bob Hostetler, *Handbook on Counseling Youth*, 오성춘 역, 「청소년 상담 핸드북-상」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69.

24) 박윤수, 「목회심리치료와 치유상담의 실제」 (서울: 라빠, 1996), 220.

고 가르치고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불안해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강박성향도 성경에서 불안이나 열려 혹은 근심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강박성향과 관련된 것은 사무엘상 10장에 언급된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었던 사울의 사건이다. 사무엘상 10장에 기록된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의 도움을 청해 제사를 드리기로 했다. 그러나 1주일도 지나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중죄를 범했다(삼상 10:8, 13:8-15). 이 당시에는 왕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는데, 사울은 너무 다급한 나머지 제사장의 권한까지 침범해 버림으로 하나님께 득죄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사울은 자신의 내면에 불안이 가득해 그 불안을 어떻게 해서든지 떨쳐버리려고 했던 행동이 오히려 자신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강박성향을 가진 자들에게 “자신의 잘못된 성향을 따르면 이러한 악한 결과들을 낳을 것이니…”라고 경고하고 있다.<sup>25)</sup> 여기서 말하는 악한 결과들은 정욕적 쾌락에의 갈망, 살인, 술 취함 등을 의미한다(갈 5:19-21).

#### (1) 원인

강박성향의 주된 원인인 불안을 Collins는 “사람의 불안의 정도와 신념은 큰 관계가 있다.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선하시고, 우주를 궁극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으로 이해한다면 혼란 속에서도 신뢰와 안정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보다 반드시 더 불안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불안이 항상 신앙적 결핍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된다. 불안의 원인은 하도 복잡해서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불안을

25) 김무석, 「교회와 사회 문제를 위한 크리스찬 상담 핸드북」 (서울: 성청사, 1990), 80-81.

경험하는 정도에 상당한 개인적인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하였다.<sup>26)</sup> 이러한 불안을 지닌 강박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지나치게 많고 죄책감을 쉽게 갖는다.<sup>27)</sup>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믿는 기독교 문화 속에서의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씻어야만 하는 존재다. 이처럼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교리적인 부분들이나 가르침은 강박성향을 쉽게 발현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으며, 기독교 의식이나 행동이 병적인 증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강박성향은 극도의 죄의식 때문에 나타난다.<sup>28)</sup>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비행이나 범죄적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다. 일상생활에 위협을 느끼며 불안을 유발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방어적인 반응으로 강박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 (2) 기독교 상담학적 치료접근법

강박성향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진리로 대처할 수가 있다.<sup>29)</sup> 첫째,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이외에 완벽한 선택은 없다. 둘째, 성경에 있는 해답 이외에 완벽한 해답은 없으며, 성경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진리를 알고 믿으며, 그 진리에 따라 살고 진리에 순종하여 합당한 감정을 갖도록 스스로 명령하는 것이다.<sup>30)</sup> 이렇게 진리가 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믿고 그에 근거하여 행동할 때에 모든 것이 진리 안에 있

26) McDwell, Hostetler, 72.

27) 권준수, 「나는 왜 나를 피곤하게 하는가」 (서울: 올림출판사, 2000), 178-180.

28) 박윤수, 224.

29) Bruce Lithchfield, Nellie Lithchfield, *Christian Counselling & Family Therapy-Vol. 1*, 정동섭, 정성준 공역, 「기독교 상담과 가족치료」 (서울: 예수전도단, 2002), 186.

30) Neil T. Anderson, *Realizing the Power of Your Identity in Christ*, 유희자 역,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서울: 조이선교회, 1993), 176-177.

게 된다. 셋째, 최선을 선택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대체적으로 좋은 것을 선택한다고 해서 끔찍한 일은 아니며, 모든 것에 대해 완벽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동시에,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으려면 그 전에 먼저 완벽한 해결책을 포기해야 한다. 넷째, 완벽한 해답을 영원히 기다리는 것보다는 주어진 해답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낫고, 행동을 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두렵다는 것은 그것을 회피할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 다섯째, 하나님과 구속 이외에 자신 스스로가 완전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강박성향이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신다.<sup>31)</sup> 사람들이 연약하여 죄를 짓고, 그로 인해 이들 스스로가 쪼아질 수밖에 없는 짐을 하나님은 치우시고 가볍게 해 주신다. 또한 분노와 죄의식, 쓸데없는 두려움 등을 제해 주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게서 은혜로 사랑받는 능력을 주셨다. 이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며, 사람들의 잘못을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 아닌, 실수와 유혹과 죄악을 용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자녀를 용서하심을 강박성향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확신하고 받아들여 몸소 체험할 필요가 있다 (엡 4:32). 여섯째,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나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의 끝은 아니라는 것이다. 영적으로 잘못된 생각들은 개인적인 영적 건강을 방해하기에, 건강한 영의 중심열쇠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통해서 강박성향을 제거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치료접근법 외에 William Backus와 Marie Chapien이 제시한 진리모델(Truth Model) 혹은 진리요법(Truth Therapy)이 있다.<sup>32)</sup> 이 진리모델은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과 가슴과 영혼 깊은 곳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며,

31) 박형렬, 「통전적 치유목회학」 (서울: 치유, 1994), 128-129.

32) William Backus, Marie Chapien, *Telling Yourself the Truth* (Minneapolis: Bethany, 1980), 249-250.

Backus 자신이 담당한 내담자들에게 임상실험을 하여 95% 이상의 효과를 나타냈고, 불안이나 우울증, 분노나 완벽주의 내담자에게 Albert Ellis의 이론인 합리적·정서적 상담이론(Rational·Emotion Therapy)이 적용되는 것과 같이 기독교 상담에서는 이 진리모델이 사용된다. 진리모델은 다음과 같다.

먼저 ‘T(trigger event)’는 자극적인 사건으로 강박성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자극적인 어떤 사건의 발생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R((w)rong response)’은 거짓된 생각으로 자극적인 사건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분명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린 건지도 몰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것은 거짓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Backus는 이를 일컬어 ‘자기고백’이라고 한다.

‘U(unhealthy response)’는 잘못된 반응으로 거짓된 생각에 따라서 이 잘못된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거짓된 생각을 말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기도도 하지 않게 되거나 교회에도 나가지 않음으로 점점 하나님보다는 쓸데없는 것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T(truth)’는 진리선포로 ‘물론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지.’라든가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나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며, 도대체 이런 생각을 벗어나기 위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왜 하고 있는 것인가?’ 혹은 ‘이러한 생각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는 강박성향에서 벗어나기가 힘들 것이다.

‘H(healthy response)’는 건전한 반응으로 건전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 진리모델을 강박성향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불합리한 생각이나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잊기 위해 얼토당토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것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본다.

## 2) 심리학적 관점

1838년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인 Jean E. Esquirol에 의해 강박장애로서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고, Kurt Schneider가 수정, 보완이

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sup>33)</sup> 그러나 그 근원의 무엇인지에 대해 처음으로 합리적 설명을 한 사람은 Paul Janet과 Sigmund Freud이다.<sup>34)</sup> 1900년대 초 프랑스 정신과 의사였던 Janet은 “정신적으로 피로하여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저하되면 생긴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원인에 대한 이론은 몇 가지가 있지만 100% 정설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에 와서 뇌의 신비가 하나씩 밝혀짐에 따라 그 원인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을 따름이다.

(1) 정신분석학적 관점

강박성향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긴 적개심과 이에 대한 죄책감을 부정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정신분석의 정설이다.<sup>35)</sup> 어린아이가 유아기를 벗어나 이제 막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하고 싶을 때에 자신이 어지럽히는 등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여유롭게 봐주지 못하는 어머니의 깔끔한 성격으로 아이를 다루다보면, 그 아이는 항상 깔끔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강박성향에 사로잡히게 된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속으로는 분노가 쌓이지만 부모와의 관계를 위해 겉으로는 참는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그 아이는 내면적으로 분노와 적개심이 쌓이게 되는데, 나중에 크면 이러한 감정을 억압하고 지우기 위하여 엉뚱한 강박적인 생각이나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즉 무의식적인 적개심과 분노에 대하여 속죄를 상징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 강박행동이다. 그리고 Freud는 강박성향이 무의식적 충동에 대한 방어현상이라고 설명하였다.<sup>36)</sup> 또한 엄격한 초자아(superego)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초자아란 사람으로 하여금 비도덕적이거나 양심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정신 활동의 파수꾼과 같은 것으로 강박성향이 짙은 사람의 융통성이 없고 경직된 생각과 행동은 엄격하고 가혹

33) 이현수, 「정신신경증」 (서울: 민음사, 1992), 149-150.

34) 권준수, 110.

35) 이만홍, 「아스피린과 기도」 (서울: 두란노, 1991), 56-58.

36) 권준수, 110-111.

한 초자아와 관련이 있다. Alfred Adler는 Freud와는 다소 다른 입장에서 강박성향을 설명한다.<sup>37)</sup> 그는 부모의 우월성으로 말미암아 경쟁의식을 상실한 결과가 강박성향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래서 개인이 열등의식을 느끼면 자신도 남을 통제할 수 있다는 무의식적 원망이 일게 되고, 이것이 강박적인 의례적 행동을 하게하며, 이러한 강박행동을 함으로써 자신도 무엇을 정복했다는 쾌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 (2) 인지주의적 관점

인지주의자들은 강박성향이 내적 사고에 불안해하며, 아동기의 경험으로 인해 어떤 생각은 위협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이라고 가정한다.<sup>38)</sup> 그래서 보통 사람에게도 때때로 떠오를 수 있는 사고나 충동들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되며, 이것을 억제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이러한 생각들은 그들의 주의를 벗어나지 않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불안에 대해 생물학적, 심리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생각은 금지하고 억제해야만 한다는 불합리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 이 사람은 강박성향을 발전시킬 위험이 높다고 보고 있다.

### (3) 행동주의적 관점

강박성향의 원인을 행동주의 학습이론에서는 강박행동을 조건화의 혐오 현상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불안을 감소시키려는 학습된 반응이라는 것이다.<sup>39)</sup> 마음속에 불안을 일으키는 생각은 정상적으로 누구에게나 스쳐 지나갈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불안은 저절로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강박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불안을 없애기 위하여 강박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행동은 일시적으로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다음에 다시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 똑같은 강박행동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다. 이미 강박행동으로 불안을 없어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박행동은 반복적인 학습

37) 박윤수, 223.

38) 박경, 서혜희, 최정윤 공저, 108.

39) 권준수, 111.

의 결과인 셈이다. 하지만 행동주의학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오직 겉으로 드러나는 강박행동에 초점을 두고, 그 행동자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나머지 심리적인 면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 (4) 심리학적 치료접근법

치료접근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약물 치료, 심리치료인 정신분석학적인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가 있으며, 신경학적 수술이 있다.

① 약물치료: 강박관념과 강박행동에 대한 약물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들은 이 분야에서 예전보다는 밝은 전망을 보여준다.<sup>40)</sup> 특히 세로토닌(serotonin)의 신경전달물질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들이 약 60%까지의 치료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 그러나 평균적인 치료효과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지 않으며, 약물이 중단되었을 때 재발이 빈번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② 심리치료: 정신분석학적인 치료에서는 강박관념과 강박행동에 대해서 공포증 및 일반화된 불안장애의 치료절차와 유사하게 자신 스스로가 강박관념과 강박행동 이면에 억압하고 있는 것을 점차로 제거함으로써 자신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을 직면하여 통찰하게끔 한다.<sup>41)</sup> 강박관념과 강박행동 그 자체로는 치료의 목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자신 스스로가 억압된 갈등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신분석학적인 치료가 강박관념과 강박행동의 치료에 큰 효과가 없었기에, 일부 정신분석가들은 보다 직접적인 행동 중심적 접근 방법을 옹호하게 되었다. 즉, 내담자로 하여금 강박행동과 같은 자아방어행동을 포기하도록 격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인지행동에서는 강박관념을 사고중지(thought-stopping)로 적용한다.<sup>42)</sup> 강박적인 의식들(rituals)에게 특별히 효과적으로 보이는 과정은 사건으로부터 강박행동을 예방하는 동안 불안해하는 상황

40) 원호택, 「이상심리학」 (서울: 법문사, 1997), 185-186.

41) 원호택, 186.

42) Garry L. Martin, J. Grayson Osborne, *Psychology, Adjustment and Everyday Living*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89), 427.

을 노출(exposure)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내담자들이 씻는 행동들을 의식화로부터 재구성을 하는 동안 그들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재촉하는 것과 관계없이 특별히 ‘오염된’ 물건을 만지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체계적인 제지와 같이 최대의 불안 자극에서 최소의 불안체계로 사용하였다. 마지막 개선책으로 이러한 치료접근이 주어지는 것은 개인적으로 65%에서 75%까지의 효과를 나타낸다.

③ 신경학적 수술: 신경학적 수술은 약물치료나 심리치료에서 효과를 얻지 못한 경우에 사용된다.<sup>43)</sup> 한 조사에 의하면 증상이 매우 심한 강박장애인 사람들 중 약 30%가 대상속(cingulate bundle)에 대한 매우 정교한 외과적 절단을 받은 후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 4. 강박성향과 청년기

강박성향이 강한 청년들은 어떤 시점에서 강박관념과 강박행동이 지나치거나 불합리하다는 점을 인식한다.<sup>44)</sup> 소아들에게는 이러한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이러한 판단을 내릴 만한 충분한 인식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기에는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때 자신의 삶 속에서 충분히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들 속에서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낀다고 한다.<sup>45)</sup> 그래서 이 강박성향이 자신의 삶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올바른 자아 존중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이로운 삶이 아닌,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왜곡된 시각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잠재적으로 그들을 부르신 것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청년들 각각의 개인들에게서도 강박성향의 합리성에 대한 통찰력의 정도는 매우 다양하다. 일부 개인들은 그들의 강박성향에 대해 의심하고, 동일한 개

43) 박경, 서혜희, 최정윤 공저, 118-119.

44) Spitzer, Gibbon, Skodol, Williams, First, 547.

45) Meier, Minirth, Wichern, 145.

인의 경우라도 강박성향에 대한 인식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및 결과

#### A.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지닌 기독교 신앙의 유무가 강박성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독교 신앙과 강박성향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대학생들을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대학생들은 서울, 인천, 경기, 충청도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852명의 학생들이었다. 이 중에 137부가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했기에 이를 제외한 715부만이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되었는데, 남자 대학생은 313명, 여자 대학생은 402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을 이용해서 two way ANOVA, T-Test와 Pearson 적률 상관계수를 적용하여 통계로 처리하였으며, 유의도 수준(p)은 .05로 하였다( $p < .05$ ).

#### B. 연구결과

##### 1. 가설 1의 검증

가설 1. 성별과 학년에 따른 강박성향의 차이 분석

성별과 학년에 따라 강박성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two-way ANOVA를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는 [표 Ⅲ-1]과 [표 Ⅲ-4]와 같다.

[표 Ⅲ-1] 성별과 학년에 따른 강박관념, 행동, 성향의 평균과 표준편차

성 별	학 년	N	강박관념		강박행동		강박성향	
			M	SD	M	SD	M	SD
남	1	116	47.15	12.19	51.06	15.66	98.21	25.83
	2	91	45.60	10.64	50.31	13.12	95.92	21.89
	3	70	44.82	11.43	51.18	13.25	96.01	23.31
	4	36	43.33	11.49	48.19	14.53	91.52	24.51
Total		313	45.74	11.52	50.54	14.26	96.28	23.99
여	1	137	46.83	12.15	54.37	13.37	101.20	22.59
	2	114	45.84	11.73	53.40	15.22	99.24	25.14
	3	78	45.74	11.49	51.73	13.52	97.47	22.52
	4	73	46.75	11.19	51.78	13.65	98.53	22.27
Total		402	46.32	11.70	53.11	13.99	99.44	23.23
남 · 여	1	253	46.98	12.15	52.85	14.53	99.83	24.13
	2	205	45.73	11.23	52.03	14.38	97.77	23.75
	3	148	45.31	11.43	51.47	13.35	96.78	22.83
	4	109	45.62	11.35	50.59	13.98	96.22	23.16
Total		715	46.07	11.62	51.98	14.16	98.06	23.60

[표 III-2] 성별과 학년에 따른 강박관념

	SS	df	MS	F	p
성별	173.220	1	173.220	1.278	.259
학년	427.021	3	142.340	1.050	.370
성별 *학년	255.506	3	85.169	.628	.597

[표 III-3] 성별과 학년에 따른 강박행동

	SS	df	MS	F	p
성별	1063.100	1	1063.100	5.319	.021
학년	545.292	3	181.764	.909	.436
성별 *학년	221.275	3	73.758	.369	.775

[표 III-4] 성별과 학년에 따른 강박성향

	SS	df	MS	F	p
성별	2094.573	1	2094.573	3.758	.053
학년	1829.611	3	609.870	1.094	.351
성별 *학년	462.166	3	154.055	.276	.842

[표 IV-4]를 통해서 본 결과, 영가설이 확립될 확률이  $p < .842$ 로 가설은 기각되고, 성별과 학년에 따라 강박성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이 밝혀졌다. [표 III-1]에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면 학년에 있어서는 1학년 학생들이 가장 강박관념과 강박행동과 강박성향이 높았고,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 대학생들이 남자 대학생들보다 강박성향이 높았으며, 강박관념을 제외한 강박행동과 강박성향은 1학년 여자 대학생들이 가장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여자 대학생들이 남자 대학생들보다 불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강박관념이 높아 강박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1학년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새로운 환경의 변화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들이 그들의 내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강박성향이 다른 학년에 비해서 높게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표 III-2]와 [표 III-3]과 [표 III-4]에서처럼 성별과 학년에 따라 강박관념과 강박행동이 라든지 강박성향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밝혀졌는데, 이는 성별과 학년의 상호작용이 강박관념과 강박행동 그리고 강박성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가설 2의 검증

가설 2. 종교의 유무에 따른 강박성향의 차이 분석

종교의 유무에 따라 강박성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Independent Samples T-Test를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II-7]과 같다.

[표 III-5] 종교의 유무에 따른 강박관념

	종교	N	X	SD	t	p
강박관념	유	612	46.0408	11.53788	-.171	.864
	무	103	46.2524	12.18784		

[표 III-6] 종교의 유무에 따른 강박행동

	종교	N	X	SD	t	p
강박행동	유	612	51.6013	13.97207	-1.786	.075
	무	103	54.2913	15.11954		

[표 III-7] 종교의 유무에 따른 강박성향

	종교	N	X	SD	t	p
강박성향	유	612	97.6422	23.28584	-1.154	.249
	무	103	100.5437	25.40873		

[표 III-7]을 통해서 본 결과, 종교의 유무에 따라 강박성향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이 밝혀졌다. [표 III-5]와 [표 III-6]에서도 [표 III-7]과 같이 종교의 유무에 따라 강박관념과 강박행동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종교를 갖고 있는 학생이건 그렇지 않는 학생이건 간에 그들의 강박관념과 강박행동과 강박성향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면 종교가 없는 대학생들에게 강박성향이 종교가 있는 학생들보다 좀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종교가 강박관념과 강박행동, 강박성향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이 믿는 종교를 통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겠다. 그렇지만, [표 III-7]에서처럼 종교가 강박성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 3. 가설 3의 검증

가설 3. 기독교 신앙의 유무에 따른 강박성향의 차이 분석

기독교 신앙의 유무에 따라 강박성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T-Test를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II-11]과 같다.

[표 III-8] 각 종교별 강박관념, 강박행동, 강박성향의 평균과 표준편차

종교	N	M			SD		
		강박관념	강박행동	강박성향	강박관념	강박행동	강박성향
기독교	510	46.32	50.71	97.04	11.44	13.71	22.85
천주교	45	45.68	57.22	102.91	12.02	14.88	25.86
불교	48	44.27	55.75	100.02	12.11	14.22	24.92
무	103	46.25	54.29	100.54	12.18	15.11	25.40
기타	9	40.88	51.77	92.66	11.19	13.99	24.73
Total	715	46.07	51.98	98.06	11.62	14.16	23.60

[표 III-9] 기독교 신앙의 유무에 따른 강박관념

	기독교신앙	N	X	SD	t	p
강박관념	유	510	46.3294	11.44120	.936	.349
	무	205	45.4293	12.07538		

[표 III-10] 기독교 신앙의 유무에 따른 강박행동

	기독교신앙	N	X	SD	t	p
강박행동	유	510	50.7118	13.71895	-3.839	.000
	무	205	55.1659	14.77517		

[표 III-11] 기독교 신앙의 유무에 따른 강박성향

	기독교신앙	N	X	SD	t	p
강박성향	유	510	97.0412	22.85386	-1.747	.081
	무	205	100.5951	25.26326		

[표 III-11]을 통해서 본 결과, 기독교 신앙의 유무에 따라 강박성향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이 밝혀졌다. [표 III-8]을 보면 강박관념의 평균이 가장 높은 학생들은 기독교대학생들이었지만, 반대로 강박행동의 평균이 가장 낮은 학생들이 기독교대학생들이었다. [표 III-9]에서는 [표 III-8]처럼 기독교대학생들이 비기독교대학생들보다 강박관념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와 반대로 [표 III-10]에서는 강박행동이 더 낮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기독교 신앙과 강박행동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강박관

념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지만, 강박행동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강박관념을 강박행동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기독교 신앙으로 극복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표 III-11]에서 기독교 신앙의 유무에 따라 강박성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밝혀짐으로 기독교 신앙이 강박성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가설 4의 검증

##### 가설 4. 기독교 신앙과 강박성향의 상관관계 분석

기독교 신앙과 강박성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적률 상관계수를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II-14]와 같다.

[표 III-12] 기독교 신앙과 강박관념

		교회 출석	주일 예배	성경 읽기	기도 생활	묵상 생활	세례 경험	구원 확신	가정 예배
강박 관념	r	-.016	-.013	-.142**	-.118**	-.127**	-.130**	-.084	-.029
	p	.713	.772	.001	.008	.004	.003	.060	.515
	N	507	509	510	510	510	510	509	509

\*\* p<.01

[표 III-13] 기독교 신앙과 강박행

		교회 출석	주일 예배	성경 읽기	기도 생활	묵상 생활	세례 경험	구원 확신	가정 예배
강박 행동	r	-.038	-.006	-.063	-.040	-.040	-.117*	-.104*	-.118**
	p	.389	.899	.154	.370	.365	.008	.019	.008
	N	507	509	510	510	510	510	509	509

\* p<.05, \*\* p<.01

[표 III-14] 기독교 신앙과 강박성향

		교회 출석	주일 예배	성경 읽기	기도 생활	목상 생활	세례 경험	구원 확신	가정 예배
강박 성향	r	-.031	-.003	-.109*	-.083	-.088*	-.136**	-.104*	-.085
	p	.483	.945	.014	.061	.048	.002	.019	.055
	N	507	509	510	510	510	510	509	509

\* p<.05, \*\* p<.01

[표 III-14]를 통해서 본 결과, 기독교 신앙과 강박성향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성경읽기 또는 성경공부와 목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세례나 유아세례를 받은 학생들일수록,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학생들일수록 강박성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강박관념은 [표 III-12]와 같이 성경읽기 또는 성경공부와 기도, 목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세례나 유아세례를 받은 학생들일수록 강박관념이 낮다는 것이며, 강박행동은 [표 III-13]과 같이 세례나 유아세례를 받은 학생들일수록,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거나 가정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일수록 강박행동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들 중에서 세례받은 경험의 여부가 강박관념과 강박행동과 강박성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교회출석기간의 장·단에 따라서 그리고 주일예배참석여부에 따라서는 강박관념과 강박행동과 강박성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음을 결과를 통해서 유출해 낼 수 있다.

#### IV. 결론 및 제언

##### A. 결론

본 연구는 서울, 인천, 경기, 충청도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집단과 비기독교 집단으로 분류해 기독교 신앙이 강박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

해보고자 한 것이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대학생들의 성별과 학년은 강박성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자 대학생들은 남자 대학생들보다 강박성향이 더 높았고, 학년별로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의 순으로 갈수록 학생들에게서 강박성향이 낮게 나타났다.

둘째, 종교의 유무는 대학생들 각자가 지니고 있는 강박성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종교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학생들보다 강박성향이 더 낮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강박관념은 기독교, 없음, 천주교, 불교, 기타의 순으로 갈수록 낮았고, 강박행동에 있어서는 천주교, 불교, 없음, 기타, 기독교의 순으로 갈수록 낮았다. 강박성향은 천주교, 없음, 불교, 기독교, 기타의 순으로 갈수록 낮게 나타났다.

셋째, 기독교 신앙의 유무는 대학생들의 강박성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지닌 학생들이 타 종교를 믿는 학생들에 비해 강박성향이 낮다는 결과가 드러났다.

넷째, 기독교 대학생들의 신앙과 강박성향과의 상관관계에서는 부적 상관관계라는 결과가 나왔다. 상관관계 결과 중에서 특히 성경읽기 또는 성경공부와 목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세례나 유아세례를 받았거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학생들일수록 강박성향이 낮았다.

이상과 같이 연구결과를 통해서 나온 결과는 기독교 대학생들이 비기독교 대학생들보다 강박성향이 낮은 편이라는 것과 기독교 대학생들의 신앙적인 특성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즉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강박성향이 성경을 읽거나 목상을 함으로, 그리고 세례를 받았거나 구원의 확신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청년기에 속하는 기독교 대학생들의 주체적인 신앙, 자주적인 신앙이라는 이들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경험적인 신앙이 강박성향을 제거하고 극복하는 데에 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 B. 제언

본 연구문제를 통해서 기독교대학생들과 비기독교대학생들의 강박성향을 비교해 보았는데, 이에 따른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강박성향이 성별로는 남자 대학생들보다는 여자 대학생들이 더 높았고 학년별로는 1학년이 가장 높았다. 이것은 여자 대학생들이나 1학년 학생들이 자신이 처한 문제들로부터 더 쉽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에 있는 과도기적인 단계에 속한 한국 대학생들이 현실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심리적인 문제들을 좀더 신앙 안에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을 격려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기독교 상담접근법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이들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강박성향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둘째, 종교가 있는 학생들일 경우 또는 기독교 신앙이 있는 학생들일 경우 강박성향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각 종교별로 강박성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천주교, 없음, 불교, 기독교, 기타의 순으로 갈수록 낮게 나타났고 강박행동에서도 기독교가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강박관념에서는 기독교가 타 종교에 비해 가장 높다고 나왔다. 여기서 기독교대학생들의 강박관념이 높았지만 강박행동이나 강박성향이 낮다는 것은 타 종교를 믿는 대학생들에 비해 기독교적인 교리나 가르침의 울타리 속에 양육을 받고 훈련이 되었기에 비기독교대학생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그 제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별성에 맞게 양육하셨던 것처럼 교회나 그 밖의 기독교대학생들을 지도하는 사역자나 교역자들은 기독교대학생들의 개별성과 신앙적인 특성을 인식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근심이나 불안, 염려 등을 신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정립해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독교 신앙요소들 중에서 성경읽기 또는 성경공부, 묵상, 세례나 유아세례, 구원의 확신이 학생들의 강박성향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교회출석 기간, 주일예배 참석, 기도, 가정예배

를 드리는 정도에 따라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기독교대학생들이 어려서부터 가정이나 교회에서 몸에 배어 온 신앙보다는 그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얻게 된 신앙이 강박성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물론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도 중요하나, 본 연구의 대상인 기독교대학생들에게서 나타난 신앙적인 특성은 자신들이 직접 체험한 것을 중요시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며, 이러한 신앙이 강박성향과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 요소 중에서 예배와 기도가 지닌 본래적인 의미나 중요성에 관해서 재인식할 필요가 있겠으며,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이 이루어지는 장(場)인 교회와 가정 안에서 드러지고 행해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경건성의 문제 혹은 갱신에 관한 부분도 깊이 재고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양육되고 훈련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혼돈된 세상 속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며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감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인 대학생들도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발견하고 견고하게 확립하며, 이와 더불어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신의 내면적 혹은 외면적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전인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데에 영속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입각한 위탁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조력해 주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자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앙요소인 8가지 요소들, 소위 은혜의 방편(grace of means)<sup>46)</sup>이라고 개념화된 기독교 신앙요소들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라 계속적인 후속 연구가 있었으면 한다. 이미 선행된 연구논문에는 기독교대학생들의 신앙적인 면과 정신건강적인 부분을 함께 연구한 논문들이 있지만, 앞으로는 대학생들은

46) 전요섭, 「기독교상담의 실제」 (안양: 한국복음문서간행회, 2001), 15-16.

물론 그 어떤 대상이라도 은혜의 방편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혹은 대학생들의 신앙과 일반상담에서 많이 다루는 심리적인 문제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등등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으로 계속적인 연구가 있었으면 한다. 그래서 더 이상 Freud와 Carl G. Jung의 심리학이 기초가 되는 내적 치유를 통해 인간의 내면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인간이 세운 이론적인 기틀보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한 경험, 즉 신앙을 통한 치료가 더 효과적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며, 그리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적인 문제가 치유됨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상태로 회복되는 결과들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알려 지길 원한다. 그럼으로써 인간의 내면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알리는 통로가 되는 것이 기독교상담학의 사명이자, 소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Abstract

Comparison between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and Non-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in Obsession

This is to research on obsession between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and non-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University students as object of this student have a lot of obsessive stress in their life situation. Especially, obsessive stress is from their parents, peer, individual aims, career choice, and marriage. The time of university student is a preparative period for adult. The hypothesis is that Christian university student will be more overcame their obsessive situation than non-Christian university student.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ing: These researchers are unable to find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These researchers are able to find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ades. That is, senior got the lower score than junior, sophomore, and freshman in obsession. Also, these researchers cannot find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and non-religions. However,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hristian and other religions for example, Buddhist, Roman Catholic, and ect.

In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students who read the Bible, prayed, and took the baptism are less the score of obsession than students who did not read the Bible, not

pray, and not take the baptism.

**\* Key Words**

Christian Counseling, Counseling, Psychology, Obsession,  
University student

K C I